

장한철 표류기



제주 사람들은 사면으로 둘러싸인 바다와 함께 삶을 살아왔다. 바다는 제주 사람들에게 많은 양식을 내 주었지만, 때로는 풍랑에 휩쓸려 먼 바다로 표류되기도 했다. 제주 사람들의 표류는 제주와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귀중한 체험이었다.



애월로 |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0 ~ 애월읍 애월리 351-1(약 2.2km)

애월로3길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017-3 ~ 애월읍 애월리 1957-1(약 0.6km)

애월로13길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719-7 ~ 애월읍 애월리 1754-12(약 0.3km)

애월로11길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717-8 ~ 애월읍 애월리 1819-28(약 0.3km)

애월복서길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984-3 ~ 애월읍 애월리 2583(약 0.5km)

애월로 | 장한철의 표해록

애월로가 시작되는 한담 해변 주변에는 커피숍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끝없이 펼쳐진 제주의 바다를 눈에 담아가려는 사람들이 애월의 바닷가를 찾고 있다. 특히 제주시 숨은 비경 31에 뽑히기도 했던 한담산책로는 조용히 바다를 감상하며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오늘날 제주는 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이면 올 수 있지만 옛날에는 나룻배 하나에 의지해 건널 수밖에 없었다. 제주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바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다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배가 가라앉아 물고기 밥이 되기도 했고, 왜적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바람을 잘못 만나면 망망대해로 표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담에 살던 장한철도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다. 장한철은 1770년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장사를 하러 육지로 떠나는 배를 탄다. 하지만 갑자기 불어온 폭풍에 배는 망망대해에 표류되고 만다. 지금의 오키나와 부근의 한 섬에 도착한 장한철 일행은 다행히 그곳을 지나던 상선에 의해 구조되어 우여곡절 끝에 배를 얻어 청산도로 돌아오게 된다. 29명이 함께 출발했는데 무사히 돌아온 사람은 8명뿐이었다고 한다. 이후 제주에 돌아온 장한철은 자신의 표류 기록을 글로 남긴다. 이 표해록은 당시의 해류나 계절풍과 관련한 사항들을 알 수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이 기록에는 제주를 만들었다는 여신 설문대할망 이야기도 등장하는데, 한담 인근에 있는 문필봉에 설문대할망이 큰 솔을 걸어서 밥을 지어 먹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 장한철은 어린 시절 들었던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한담산책로가 시작되는 한담공원에는 장한철을 기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세운 작은 배 모양의 장한철표해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애월로3길 / 애월로 13길 | 애월환해장성과 애월진성

그렇다고 위험한 바다에 나가지 않기로 하면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제주는 육지와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왜적들의 침입에도 대비해야 했다. 그래서 제주 해안가에 둘러싸인 것이 환해장성이다. 애월로에서 이어지는 **애월3길**을 따라 해안가에 이르면 애월리에 남아있는 환해장성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성을 쌓는 것만으로 왜적에 대한 방비가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왜적들은 언제 어디로 침입해 올지 몰랐기 때문에 해안선을 감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그래서 해안가를 돌며 오름에는 봉수대, 바닷가 가까이는 연대를 곳곳에 설치했다. 애월연대는 이런 목적에 따라 애월의 바다를 감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주변의 귀덕연대, 고내봉수와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연대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애월진성도 있었다. 이 성은 고려 때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와서 여몽연합군을 막기 위해 세웠다. 처음에는 나무로 지어졌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돌로 다시 쌓고, 애월지역의 방어시설로 사용했다. **애월로13길**에 있는 애월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벽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 <탐라순력도>의 애월조점에는 이형상 목사가 성 안에서 군사와 말을 점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애월진성

애월로11길 | 하물과 장공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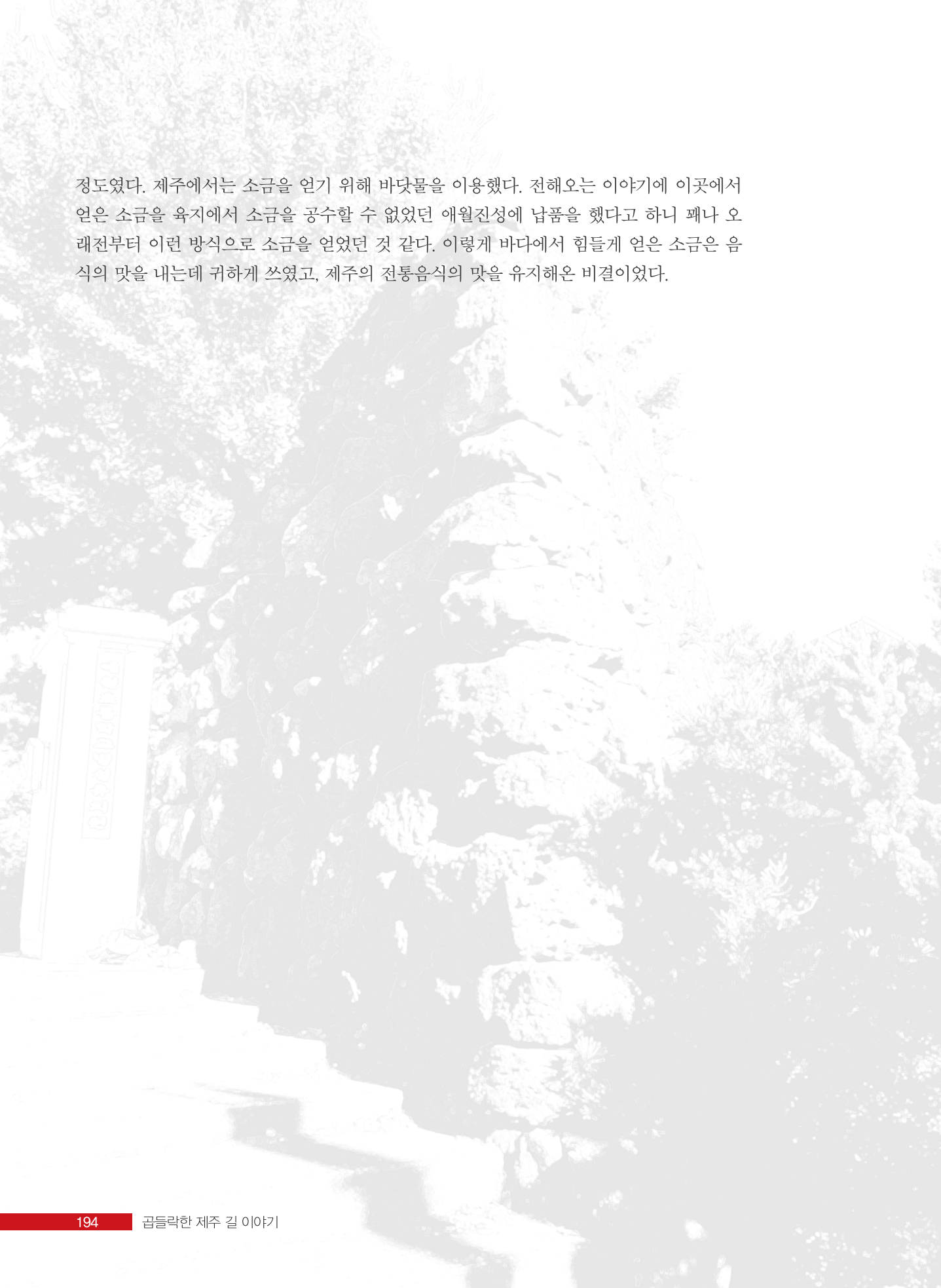
애월초등학교 정문과 이어진 **애월로11길**에는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천수가 정비되어 있다. 큰물이라는 의미로 하물이라 불리던 이 물은 물이 많이 나는 곳이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빨래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도 이용했다고 한다. 이 물은 1987년에 자연보호협회와 경향신문사가 발표한 한국의 명수 100곳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물과 가까운 곳에 장공물이라 불리는 물도 있다. 이 물은 옛날 애월진을 지키던 장군이 먹었던 물이어서 장군물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고, 밀물 때 바닷물이 육지로 많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치수사업을 주도했던 장익준의 이름을 따서 장공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옛날에는 남녀가 하물과 장공물을 따로 이용하였는데 하물은 여자들이 이용했고, 장공물은 남자들이 이용했다고 한다.



하물

애월복서길 | 배무숭이 소금밭터

애월복서길을 따라 바닷가에 이르면 만날 수 있는 배무숭이 소금밭터는 널찍한 돌에다가 바닷물을 가득어 놓고 소금을 얻었던 곳이다. 옛날에는 물을 얻기도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얻기 힘들었던 것은 소금을 얻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금이 금보다 더 비싸다고 할

A photograph of a rocky coastline. In the foreground, there is a stone monument or marker with a decorative pattern on its side. The background consists of large, dark, jagged rocks and some sparse vegetation. The sky is bright and overcast.

정도였다. 제주에서는 소금을 얻기 위해 바닷물을 이용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이곳에서 얻은 소금을 육지에서 소금을 공수할 수 없었던 애월진성에 납품을 했다고 하니 꽤나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소금을 얻었던 것 같다. 이렇게 바다에서 힘들게 얻은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 귀하게 쓰였고, 제주의 전통음식의 맛을 유지해온 비결이었다.